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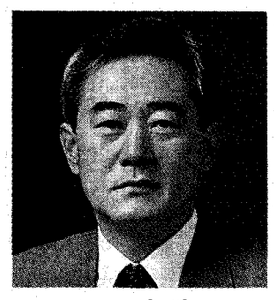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조정원
주간 최상진
편집장 최수정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 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01－2056·2860
FAX (0331)204－8121

제1135호 〈주간〉 1998년 1월 1일 (목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년 5월 12일 창간) ISSN 1228－0054 【1】

무인년 신년사



조정원
〈총장〉

난국을 헤쳐가는 대학 만들겠다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구성원 모두가 거듭나길

존경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대학의 명성을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추진실적 평가와 수원캠퍼스의 종합평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제체육학술대회와 한 독 학술회의를 비롯, 여러 국제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내 국제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희인의 밤 행사와 여성동문모임을 비롯한 동문 모임을 교내에서 차질없이 치루어 냈음은 물론 경희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 경희가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국내대학간 교류, 서천군을 비롯한 지역과의 교류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기도 한 우리학교는 미래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한국가상대학연합을 주도하는 등 지난 해에 경희가 쌓은 업적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조적 경제불황과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일련의 위기상황은 국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암울한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가경제는 물론 대학운영의 앞날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무엇보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핍과 절약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유를 희생할 각오는 물론 낮은 곳을 살펴보는 세심함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이를 극복해 온 대학이기도 합니다. 60년대의 잘살기운동, 70년대의 밝은사회운동, 80년대의 세계평화운동, 90년대의 도덕과 인간성회복운동, 그리고 제 2의 르네상스 운동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인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경희의 이름으로 극복해 온 사례가 이를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학교육개혁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군 업적으로 97년에도 96년에 이어 교육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통해 이룬 쾌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만족하여 자만하거나 속도를 늦춘다면 더 이상의 진보가 힘들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학도 경쟁에서 낙오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다운 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자구적인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경희의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기의 획을 긋게 될 1999년의 개교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도전과 시련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확고히 해 온 경희역사의 궤적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길만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경희의 무대로 삼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원단에 우리는 늘 경건하게 한 해를 설계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구성원 모두의 화합된 힘으로 새해의 각오가 경희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 경희 가족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97년 기사로 보는 '98 경희 10대 전망'

• 대외평가 '상승세'

지난 96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정부로부터 총 13억원을 지원받은 우리학교는 연이어 97년에 실시한 같은 평가에서 1위라는 쾌거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높이 평가받은 부분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부문으로 98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학교장 추천 전형, 자기소개서 전형, 토익 · 토플 전형 등의 실시가 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뿐 아니라 지난 해 중앙일보를 포함,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우리학교가 상위권을 차지해 향후 우리학교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추측된다.

• 조정원 총장 취임, 변화의 시작

지난 97년 1월 13일 제10대 총장에 조정원 교수가 취임하면서 학내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Tea Time 제도를 시작으로 한 각종 제도들의 탄생은 새총장에 걸맞을 만한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학내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이 제도는 가까운 곳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조총장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청결의식을 생활화하고자 실시하게 된 C.C.C.(Clean Campus Campaign)운동은 자치활동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를 노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총장은 1999년 맞이하게 될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로 인해 동문들의 참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 동문참여의 최대 활성화

지난 한해 동문들의 모교를 향한 관심은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경희발전기금 성금을 통한 동문들의 지원은 그러한 관심을 나타낸 좋은 예로, 지난 96년 10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경희발전기금 모금에 지금까지 참가한 동문의 수는 2백여명이며 총 모금액은 약정액을 포함, 약 12억에 다다른다.

이와 같은 동문의 참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동문찾기 캠페인 실시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동아일렉콤 사장 이건수(정외 12회 졸) 동문의 경우 지난 9월 18일 학교를 방문, 3억원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월 16일에는 동문연예인들이 솔선하여 기획한 가을 콘서트가 개최되었고, 지난 11월 11일에는 학내에서 총동문회를 개최하는 등 동문들의 모교 사랑 실천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동문찾기 캠페인으로 새롭게 찾은 약 7만명의 동문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오는 3월 5일 열리게 될 '자금성 보물 전시회'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참여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취업난, 끝은 없는가

취업정보실이 조사한 97년 2월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율이 다른 해에 비해 저조한 서울캠퍼스 80.2%, 수원캠퍼스 61.6%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97년에 취업정보실로 문의된 기업체의 공문이 96년의 절반 수준에 다다라 '취업대란' 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던 97년. 그러나 이러한 취업난은 9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다. IMF 한파로 인한 기업들의 대폭적 인원 감축의 움직임은 그러한 위기를 더욱 절감케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열린 모의면접, 합동설명회, 채용한마당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만 원하는 진로를 걷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열린교육, 그 실천의 장

지난해 우리학교는 다양한 입학제도를 마련, 대학이 단순히 정규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밟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그 첫 번째 예로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어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실제로 첫 시행 때부터 높은 경쟁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사 편입학의 문을 넓혀 97학년도 2학기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 외국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으로 삼을 만한 일인데, 이러한 열린 교육은 향후 우리학교의 이미지 고취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총학생회 갈 길이 멀다

97년은 '총학생회 수난의 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학생회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행을 포함, 연중 계속된 학생회 간부의 연행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나마 학생회를 뒷받침 해주어야 할 학생들 마저 55% 이상이 학생운동의 전신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탈퇴해 독자적으로 설 것을 희망했으니 말이다.

그런가하면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관심은 드디어 바닥을 보이기에 이르렀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된 전학대회가 그러한 현실을 말해주기도 했다.

정부의 총학생회에 대한 탄압은 끝내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학점 제한' 으로 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이 제재는 98학년도에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30대 총학생회부터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향후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 교육의 산실

95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우리학교는 이제 명실상부한 정보화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각종 학사업무의 전산화가 정착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 지난 3월 개관한 서울캠퍼스의 전자열람실과 4월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지급한 무료 ID는 정보화로의 진입을 예견할 만한 것들이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에는 가상대학으로의 입문을 알리는 한편, 현재 건립중인 서울캠퍼스의 종합강의동과 수원캠퍼스의 멀티미디어 교육관은 이러한 정보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 노력하는자 인정받는다

교수 평가. 그동안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이 부분에 학교가 과감히 손을 댈 것을 표명했다. 지난 5월말 발표된 '교수연봉제' 의 실시가 바로 그것인데 교수들의 2년간 업적을 토대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 제도는 교수의 정년보장에 대해 당연시 여겨오던 대학사회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더불어 학교는 지난 8월말 교수연구년내에 보수의 전액을 지급할 뜻을 밝힘으로써 교수에 대한 처우를 한층 개선할 뜻을 내비춰 노력하는 교수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대학사회의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학교측은 내다보고 있다.

• 학부제, 정착기 맞을 것인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학내에는 참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던 일을 든다면 단대들간의 통합 및 다채로운 학부의 증설을 들 수가 있다.

먼저 지난 8월 사범대가 폐지, 문리대와 통합한 데 이어 지난 11월 초 교무처는 98학년도에 1개의 주간학부와 7개의 야간학부를 신설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2월 초에는 기존의 호텔경영전문대학이 4년제로 승격되면서 우리학교와 통합되기도 했는데 이는 점차 다원화 되어가는 교육 추세에 부응하고자 학교가 과감히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야간학부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정책적인 지원만이 숙제로 남아 있다.

• 수원 교통문제 해결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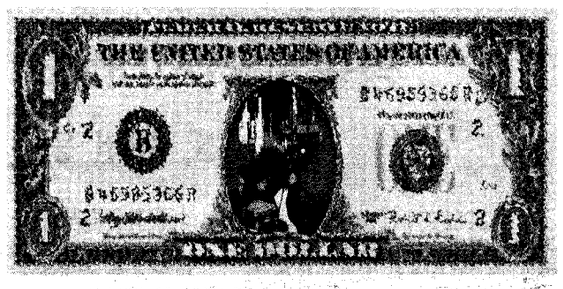
수원캠퍼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왔던 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수원캠퍼스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서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10월말 잠정 결정된 성균관대～수원캠퍼스간 경전철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통학학생들의 진출입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영통지구내에 수원캠퍼스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여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골칫거리인 교통문제는 미약하나마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이 기자〉

지면안내

3 신년축사
범띠 경희가족 새해소망
5 사회특집
97 사회 6대 뉴스
6 학생일꾼 새해각오
단과대학 학생회장 인터뷰
7 시 사
정권교체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8 생활문화
IMF와 대학생



50

D-365

흔히 쉰살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지요.

쉼없이 달려온 지난 48년, 경희는 바로 그 '지천명(知天命)' 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는 그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경희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저희 대학주보사도 지면혁신과 양질의 기사로 독자여러분께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학/주/보/사